

바티칸 빈민 샤워시설



약 4 년 전, 성 베드로 대성당의 주랑 (돌기둥) 아래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로마의 노숙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세 곳의 샤워시설과 작은 이발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이 시설은 교황님의 일반 알현행사, 성 베드로 대성당이나 그 앞 광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됩니다. 이 시설은 자원봉사자들이

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중에는 마리아니스트 수녀님들과 청원자들, 그리고 로마에 머무르는 어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"노숙자"들을 접수하고, 샤워를 위한 속옷 한 벌, 수건, 비누, 치약, 면도기, 면도용 크림을 제공하고, 시설을 깨끗히 유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대화를 하고싶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약간의 음식도 제공합니다.

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"자택 격리"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기 갈 곳 없는 모든 노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.



올리비아 (마리아니스트 청원자)
바티칸 빈민 샤워시설 봉사자

미켈라 메시나 수녀 (FMI)
올리비아 라자나말랄라